

활동향연  
**05**

# 세상을 바꾸는 비폭력의 힘

평화운동이 궁금한 시민들을 위한 안내서

이용석

활동향연  
**05**



05

이용석



# 세상을 바꾸는 비폭력의 힘

평화운동이 궁금한 시민들을 위한 안내서

이용석

# 목차

---

## 1. 웰컴 투 평화운동 · 5

왜 이 연구를 시작했나요 |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 이 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2. 평화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들 · 15

### Q1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은 평화운동의 주제가 될 수 있나요? — 평화운동의 목표

전쟁과 폭력에 맞서는 평화운동 | 전쟁은 왜 일어나고 누가 전쟁을 원하나 | 평화운동의 목표

### Q2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은 평화운동이 아닌가요? — 평화운동의 범주

평화운동이 다루는 이슈들 | 평화운동이라는 도구가 쓰이는 곳

### Q3 평화운동은 항일무장독립운동을 비판하나요? — 평화운동의 철학

무엇이 폭력인가 | 평화운동은 왜 비폭력이어야 하나

### Q4 파병을 막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려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 — 평화운동의 방법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사회운동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나 | 평화운동의 강력한 도구, 비폭력 직접행동

### Q5 평화운동은 왜 군인 인권을 다루지 않나요? — 평화운동의 친구들

평화운동의 친구들 | 평화운동은 친구가 필요하다

### 3. 평화운동 사례 · 53

####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대항리, 대추리, 강정마을, 소성리**

대항리, 대추리, 강정마을, 소성리 | 토착민을 쫓아내는 군사주의

####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병역거부 캠페인**

아무나 할 수 있는, 누구든 잘 알고 해야 하는 | 전쟁에 대한 양심적 거부

#### **무기들이 잘 있거라: 대인 지뢰 캠페인, 확산탄 금지 캠페인, 최루탄 수출 반대 캠페인, 핵무기 금지 캠페인**

개별 무기에 대한 평화운동의 다양한 저항 | 평화운동과 시민들의 몫

#### **살인마보다 무서운 살인무기 전시회를 멈춰라: 아덱스 저항행동**

무기산업체와 전쟁 돈벌이 |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 |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출 수 있다

#### **가해자의 자리에 서 보기: 베트남전 시민법정**

평화의 시선으로 보면 가해자로서 책임이 보인다 | 시민평화법정이라는 형식 | 시민들이 열어가는 평화운동의 자리

### 4. 연구보고서를 끝맺으며 · 79

### 5. 부록 · 84

국내 평화운동 단체들 목록 | 참고자료



## 웰컴 투 평화운동

### 왜 이 연구를 시작했나요

오랫동안 병역거부운동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한국은 남북한 분단 상황이고 아직 한국 전쟁도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일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병역거부는 무리한 주장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남북한의 군사갈등만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을 보자면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 여러 군사 갈등 요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곳 한반도에서 병역거부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 갈등이 높고 전쟁 위기가 현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더욱 값지지 않을까요?”

꼭 병역거부운동에만 해당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아직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우리는 더 강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정말 전시 상황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한반도가 군사적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라는 진단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는 대한민국<sup>1)</sup> 과 핵

---

1)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발행, 피스모모 번역, 「SIPRI YEARBOOK 2018 요약본」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북한이 휴전선을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고, 거기에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이 약 3만 명가량 주둔하고 있으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운동이 정말로 필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지역은 이미 충분히 평화로운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거나 군사적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의 평화운동은 그리 강력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와 비교하더라도, 혹은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과 비교하더라도 평화운동은 분단된 상황이라는 특별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미약하기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운동이 가진 힘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국현대사가 겪어온 비극이 오히려 군사주의나 군사안보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운동이 다루는 이슈들이 예컨대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에 비해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낙태죄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주 많지만, 사드배치나 병역거부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깐요. 다른 이유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평화운동이 왜 힘이 약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평화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혹은 사회변화나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운동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평화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동안 평화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은 아주 열심히 활동해왔습니다. 때로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운동과 시민들 사이 거리는 여전히 가깝지 않습니다. “평화운동, 다 좋은데 그냥 좋은 말 나열한 이상주의 아니냐?” 혹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화운동이 주장하는 게 뭘지,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접할 때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들에게 평화활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라도 평화운동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 그 논리와 이야기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연구보고서입니다. 당신이 만약 사회를 좀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혹은 평화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이 연구보고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평화운동을 해오면서 기자들이, 때로는 시민들,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로 이 연구를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었고, 평화운동을 설명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과 각 질문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뽑은 다섯 개의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연구보고서의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연구자인 저와 제 주변 평화활동가 동료들의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작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문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3장에서는 평화운동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는데, 그 중에서 시민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사례를 담았습니다. 하나의 캠페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캠페인이 발달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낯선 외국 사례보다는 한국 사례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보고서를 읽은 시민이 각각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직접 참여한 캠페인을 위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지 못한 평화운동 캠페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특별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한 평화운동 단체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넣었습니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시민들의 참여가 사회운동에는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평화운동 단체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애정을 갖고 함께 평화운동을 만들어갈 시민들의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읽고 평화운동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부록에 있는 어느 단체에든 주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가장 어려웠던 점은 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엇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 이라크를 침략했다고 이야기하는 조지 부시 같은 이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넓고 광범위한 평화의 정의가 있습니다. 평화학 관련 책들을 살펴보다도 제도적인 민주주의부터, 생태 환경, 일상에서의 관계, 내면의 다스림 등 세상살이의 모

든 것을 평화의 범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문장에 강조 표시를 해두면 결국 글 전체로 보면 아무 것도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평화를 너무 넓게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친 테두리가 과연 타당한지를 끊임없이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군사주의와 전쟁과 관련한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 즉 반군사주의 운동으로 평화운동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이 테두리를 정한 뒤에도 각각의 사회운동이 이 테두리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이 평화운동이고 평화운동이 아닌지 판단하고 나누기보다는, 평화운동은 과연 이 일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개입해야할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의 전 과정은 평화활동가 동료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질문을 선정하고, 목차를 확정하고, 대답을 작성하고, 단체 목록을 정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활동가의 조언이 이 연구보고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 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닙니다. 사회학 논문을 쓰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평화운동이 무엇인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논리정연하고 학술적인 연구보고서를 기대하신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활동가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이라는 평화운동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평화활동가입니다. 2003년 단체가 처음 결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전쟁없는세상의 일원으로 평화운

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5년 정도 출판사에 다닌 적도 있지만, 제가 주로 기획하고 편집한 책들은 평화운동이나 사회운동 관련 책들이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이 이 연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활동가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만큼 연구자들의 연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보고서에 담긴 주장이나 시선, 혹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 제가 내세운 기준들은 엄밀한 학술적인 잣대로 보자면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한계라고 겸허하게 인식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학술적인 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활동가가 직접 발로 뛰며 겪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평화운동이 무엇인지 말하는 데 있어서 엄밀한 학적인 구분보다는 실제로 평화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지점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물론 아카데미하고 학적인 연구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학의 토대가 척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많은 평화학 연구자들이 필요하며 아카데미하고 학적인 논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활동가로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운동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연구보고서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이 글의 주요한 독자는 평화학 연구자도 아니고 평화활동가도 아닙니다. 물론 평화학 연구자나 평화활동가들이 이 글을 읽고 여러 문제제기나 토론을 이어가준다면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만, 누구보다도 이 글을 읽기를 바라는 분들은 평화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운동을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시민 독자들에게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활동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려운 이론적인 이야기는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화운동 연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우기보다는 이 보고서를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들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으니, 약간의 낯설음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통과 의례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게 다다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이 보고서의 형식만을 보자면 보고서보다는 일종의 팸플릿에 가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결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평화활동가들, 연구 멘토, 활력 향연에 참여하는 다른 연구자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의 본문은 일종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들은 실제로 제가 평화운동을 해오면서 직간접적으로 들은 질문들입니다. 많은 분이 평화운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원래 연구보고서에 담고자 했던 평화운동의 철학과 방법, 이슈와 범위, 목표, 평화운동이 만나는 동료들을 두루 서술했습니다.

평화운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다 보니 어쨌든 제 나름의 기준으로 여러 사회운동을 판단하고 서로를 구분 짓기도 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구분과 판단은 평화운동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 내려 앞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운동을 깎아내리거나 혹은 어떤 운동이 더 의미 있는지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운동이 아니라고 해서 평화운동보다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화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더 잘 만나기 위해 평화운동만의 특징을 찾아보려 애썼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나를 알아야 타자와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질문은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평화운동이 마주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이 복잡한데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명쾌함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 정답이 아니면 오답 같은 인식 구조는 오히려 권력이나 폭력에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평화운동은 복잡한 갈등의 구조를 살피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문현답은 있어도 사이다 대답만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 평화운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담지 못한 것들, 앞으로 다른 평화활동가들이나 평화학 연구자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시민들에게 보내는 평화운동 초대장입니다. 더 친절한 초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4장에서 살짝 언급하겠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평화운동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특히 2020년

을 목전에 둔 한반도라는 시공간에서 평화운동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걸 잘 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다른 훌륭한 분들이  
이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 평화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들

### Q1.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은 평화운동의 주제가 될 수 있나요?

#### — 평화운동의 목표

좋은 답을 하기 위해선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찾기 위해 애를 쓰지만, 좋은 질문을 만드는 데는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답보다는 좋은 답을 찾아야 하고 좋은 답은 늘 좋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 평화운동의 주제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하나 마나 한 대답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나 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평화운동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에 개입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평화운동의 목표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혹은 학교폭력에 평화운동이 개입한다면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회문제는 여러 겹의 부정의와 차별, 폭력이 한데 어우러져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운동 그룹이 연대하기도 합니다. 각 그룹은 아주 큰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에 임합니다. 서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사회문제일수록 다양한 운동 그룹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 폭력을 예로 들어봅시다. 『괘이부리말 아이들』로 유명한 김중미 작가의 소설 중에 『꽃섬고개 친구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한길의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성실했던 아버지는 베트남에 다녀온 뒤 폐인이 되어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남편이 가해자고 아내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여성 혐오의 문제입니다. 한길이네 아버지의 경우는 전쟁 트라우마로 폭력에 중독됩니다. 이걸 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운동, 군 인권 운동,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운동이 모두 필요하고, 각각은 한길이네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목표를 갖고 참여해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마침내 가정폭력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저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 운동과는 구분되는 평화운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 **전쟁과 폭력에 맞서는 평화운동**

쉽게 생각해보면 평화운동의 목표는 전쟁 혹은 폭력의 근절입니다. 그런데 폭력만 해도 종류가 아주 많고 그 모든 폭력은 다 근절

되어야 하고, 각각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평화운동이 담당하는 폭력은 따로 있습니다. 폭력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운동이 주로 저항하고 맞서는 폭력은 전쟁이나 군사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폭력입니다.

예컨대 요즘 많은 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따져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작업일 텐데 여기서는 편의상 굉장히 단순화시키겠습니다. 많은 분이 성폭력을 여성 혐오나 강간 문화, 혹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성폭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근절이 평화운동의 목표라고 말하려면 조금 망설여집니다. 반면 전시에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은 평화운동입니다. 할머니들이 겪은 일은 여성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전쟁과 군사주의로 인한 전시 성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보겠습니다. 평화운동은 전쟁과 군사주의에서 기인한 폭력에 저항하고 맞서는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운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목표로 하고,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생태 운동은 생태적인 삶을 구조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화운동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연구자마다, 활동가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평화운동에 대한 논문이나 단행본이 많지 않은데, 대부분 추상적인 표현으로 평화운동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평화운동-이론, 역사, 영역』이라는 책에서는 목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폭력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것, 폭력 감소를 넘어 평화를 실현하는 것, 평화 달성에 헌신할 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정의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인데 공허하게 들립니다. 저는 활동가로서 평화운동의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획할 수 없다면 그냥 좋은 소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목표를 너무 협소하게 잡거나 실행 가능성만 따져서 아무런 이상도 품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비대하고 커다란 이상만 품은 채 도대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 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폭력 감소와 예방, 평화 실현 이런 목표도 좋지만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할 거냐고 물으면 오만가지가 다 떠오르거나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실제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조직할 수 있을 구체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쟁은 왜 일어나고 누가 전쟁을 원하나**

전쟁은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틀러나 후세인, 조지 부시가 유난히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결정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발적인 계기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칠게 나누자면 전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첫째로 전쟁을 부추기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으

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군사 갈등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정치인들과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군수 산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때로는 없는 위기도 만들어 냅니다. 과거 한국의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위협을 더욱 강조하곤 했죠. 1996년에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무력시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의석수 1/3을 차지하기도 힘들다는 평이 많았는데, 북한군의 무력시위를 지렛대 삼아 안보 불안을 부추기며 제2 야당인 국민회의보다 60석이나 많은 139석을 휩쓸게 됩니다. 또한 영화 <공작>(2018)의 모티브가 된 이른바 ‘총풍 사건’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베이징에서 북한을 접촉해 휴전선 무력시위를 부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러한 의혹들이 해명되지는 않았습디지만,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군사 갈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수 산업체들의 전쟁 기획, 조장은 정치인들보다 더욱 노골적입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립니다. <표1>을 보면 세계적인 군수 산업체 록히드마틴의 매출액은 세계적인 제조업체 애플과 삼성전자의 30%~40%에 육박합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록히드마틴이 무기 판매만으로 4천5백만 달러에 가까운 매출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행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2017

(단위:미화 백만달러)

순위	제조업 탑 15	총매출액	순위	군수 산업체 탑 15	무기 판매	총매출액
1	Toyota	254.7	1	Lockheed Martin Corp.	44.9	51.0
2	VW	240.3	2	Boeing	26.9	93.4
3	Apple	215.6	3	Raytheon	23.9	25.3
4	Samsung Electronics	174.0	4	BAE Systems	22.9	23.5
5	Daimler	169.5	5	Northrop Grumman Corp.	22.4	25.8
6	General Motors	166.4	6	General Dynamics Corp.	19.5	31.0
7	Ford	151.8	7	Airbus Group	11.3	75.2
8	Hon Hai Precision Industry	135.1	8	Thales	9.0	17.8
9	Honda	129.2	9	Leonardo	8.9	13.0
10	General Electric	126.7	10	Almaz-Antey	8.6	9.1
11	Fiat Chrysler Group	125.0	11	United Technologies Corp.	7.8	59.8
12	SAIC Motor	113.9	12	L-3 Communications	7.8	9.8
13	Nissan	108.2	13	Hutington Ingalls Industries	6.5	7.4
14	BMW	104.1	14	United Aircraft Corp.	6.4	7.7
15	China Railway and Engineering Group	97.0	15	United Shipbuilding Corp.	5.9	5.6
탑 15개 기업 매출액 합		2311			231.6	455.6

<표1> 전 세계 제조업 탑 15개 기업과 군수산업 탑 15개 기업 매출액 비교

출처: 「시프리 무기생산업체와 군사서비스 회사 탑 100, 2017」(제조업체 리스트는 Fortune Global 500 for 2017, 군수 산업체 리스트는 SIPRI Top 100 for 2017에 기초했습니다.) [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18-12/fs\\_arms\\_industry\\_2017\\_0.pdf](http://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18-12/fs_arms_industry_2017_0.pdf)

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00대 군수 산업체들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3억9천8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중국 기업들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렇게나 큰돈이 걸려있다 보니, 군수 산업체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 정치인과 국방관계자에게 고액의 뇌물을 건네고, 군사갈등과 내전을 부추기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군인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군인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거부하거나 명령에 불복중한다면 전쟁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죠. 군인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과 전쟁 수행 중인 군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노동자들도 결과적으로 전쟁이 지속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전쟁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만든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지속하는데 복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전쟁을 지지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전쟁을 묵인하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독재자라 하더라도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

러의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소수자 혐오, 인종주의 등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쟁을 심어놓지 않았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평화운동의 목표

그렇다면 평화운동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화운동은 전쟁과 군사주의가 만들어내는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운동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머릿속에 평화운동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목표와 연결되지 않나요?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또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혹은 전쟁으로부터 파생된 결과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참전 군인들이 전쟁에서 입은 트라우마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정폭력의 뿌리는 전쟁과 연결된 것이죠. 학교폭력 또한 그 폭력의 발생 원인이 전쟁이나 군사주의에서 기인한다면 혹은 그 양태가 지극히 군사주의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면 평화운동과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평화운동의 고유한 특징을 찾는 과정은 평화운동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거나 순수한 혈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운동의 목표를 살펴보는 것은 목표에 알맞지 않은 것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와 현상들이 평화운동의 목표와 만날 수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것이죠.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나쁜

일이니, 그것에 저항하는 일에 평화운동도 무조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그저 좋은 일에 다 동참한다면 평화운동은 이것저것 다하는데 내용은 없는 속 빈 강정이 될 거고, 이것저것 동참하는 일들도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 잘 되기도 어렵습니다. 무작정 동참하기보다는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평화운동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이슈에서 전쟁에 저항하는 자신의 목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평화운동과의 적절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평화운동의 목록을 하나씩 늘려간다면 평화운동도 풍성해지고, 알맹이도 튼튼해지니까요.

## Q2.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은 평화운동이 아닌가요?

### — 평화운동의 범주

사실 저는 ‘평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운동을 소개할 때 주로 ‘반군사주의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평화’, ‘인권’ 이런 단어들은 너무 폭이 넓습니다. 참 좋은 단어들이지만 너무 넓게 확장 가능한 나머지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실 모든 사회운동은 다 평화운동이고 다 인권운동이니까요. 아니, 평화와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전쟁을 일으키는 정치인들도 다들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평화에 대해 정의 내리기가 이토록 난감하니, 평화운동이 무엇



인지 정의 내리기 또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가 평화운동이고 무엇이 아닌지 나눠야 할 이유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평화운동이 무엇이나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하려는 노력이 평화운동과 다른 사회운동을 구분 짓기 위한 게 아니라 평화운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운동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과연 무엇이 평화운동이고 무엇이 또 평화운동이 아닐까요? 여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평화운동이 다루는 사회 이슈들, 즉 평화운동의 범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평화운동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은 평화운동일까요?*

세상일이란 게 무 자르듯 딱 구분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마련이죠. 시민사회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캠페인도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그 안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위안부’는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성운동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당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죠. 그렇다면 이건 인권운동의 이슈입니다. 당시 일본제국주의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을 위해 ‘위안부’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건 전쟁 시 일어난 전쟁범죄이고 평화운동의 이슈입니다. 요즘은 많이 비판받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민족차별의 문제로 인식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문제는 민족운동의 이슈였겠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을 과연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어 넣어 구분하는 건 불가능할뿐더러 그러한 구분은 사회운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 운동의 관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을 조명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많은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운동은 더욱 풍성해지겠죠.

### **평화운동이 다루는 이슈들**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자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은 평화운동의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막거나 최소한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반대 캠페인,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 젊은이들의 병역거부, 정부의 전쟁 참여를 비판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 같은 것들이죠. 전쟁이 끝난 뒤 남은 상처를 돌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평화운동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활동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진상을 규명하려는 캠페인이 대표적입니다. 전쟁의 원인들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도 중요한 평화운동입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고 파는 기업을 감시하는 캠페인, 비인도적인 무기 생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캠페인, 군사안보이데올로기에 맞서 대안적인 안보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과 평화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한국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거나 잘 알려진 사례를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생소한 평화운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 산업체에 대한 저항행동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군수 산업체들이 무기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즉 전쟁 장사로 돈을 버는 것에 저항하는 활동을 평화활동가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활동가들이 미국 기업인 록히드마틴의 무기 생산을 막아서고, 영국의 활동가들은 자국의 군수 산업체 BAE의 무기 수출을 막는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서는 평화활동가들이 군수 산업체들이 자원을 수탈하고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저항하는 활동을 합니다. 전쟁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식이 시공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평화운동 또한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서 전개되는 것이죠. 우리 시선으로 보기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캠페인은 평화운동보다는 노동운동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운동과 함께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이 목표하는 바를 들여다 보면, 군수 산업체들이 전쟁 장사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는 활동이라면 이는 명확하게 평화운동의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군사주의를 한 꺼풀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더 많은 평화운동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군사주의가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식은 성별에 따른 특징과 경제적 계층에 따른 특징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남성 혹은 부자 나라의 가난한 계층 남성은 군인으로 전쟁터에 내몰립니다. 가난한 남성에게 대한 전쟁의 착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년병입니다. 그가 부유한 계층이었거나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었다

면 적어도 소년병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편 가난한 나라의 여성 혹은 부자 나라의 가난한 계층 여성은 군대 근처의 성매매로 내몰립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군부대 옆에는 늘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그곳에서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은 가난한 여성들입니다. ‘소년병’이라는 문제, 혹은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는 전쟁과 군대와 떼어 수 없는 문제로 평화운동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군사기지가 들어선 땅의 오염을 측정하고 방지하는 활동, 군사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를 다루거나 군인들이 지역민을 상대로 일으키는 범죄에 대응하는 캠페인도 지금 당장의 전쟁과는 연관 없어 보이지만 평화운동이 다루는 이슈들입니다. 평화운동이 더 많은 이슈를 다룰수록 평화운동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니 반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평화운동과 만나서 새로운 이슈들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 **평화운동이라는 도구가 쓰이는 곳**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무조건 다 평화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운동이 가진 한정적인 능력과 역량을 잘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저것 무조건 다 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이한 사회운동이나 캠페인이 연대한다고 무조건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평화운동은 폭력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모든 폭력에 평화운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에 대해서는 평화운동의 관점보다 다른 관점이 더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용산참사를 떠올려보죠. 당시 경찰의 무

리한 진압과 폭력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평화운동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제철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것은 빈민운동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정확하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화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운동은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불을 끌 때는 소방도구가 필요하고 요리를 할 때는 조리기구가 필요하듯, 사회운동도 각자의 쓰임에 알맞은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평화운동이라는 도구가 쓰이기 적절한 주제들은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평화운동은 전쟁과 맞설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평화운동이 활약하는 이슈들은 보통의 경우 전쟁 혹은 군사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복잡한 세상만사가 어떻게 전쟁이나 군사주의와 연결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문제나 현상이 과연 평화운동의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평화운동의 범주를 정답을 정해놓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많은 문제가 어떤 면에서 군사주의와 협력하는지, 전쟁의 원인 혹은 결과로 연결되는지 찾는 노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면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화운동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명확하게 평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룹니다. 아무리 옳은 목표라고 할지

라도 평화주의적인 개입이 아니면 평화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항폭력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저항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Q3. 평화운동은 항일무장독립운동을 비판하나요?

#### — 평화운동의 철학

“독립운동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재판정에서 검사는 피고인 석에 앉아있는 병역거부자 오경택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병역거부자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질문, 아니 질문을 가장한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무장투쟁이라는 방식을 비판한다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테고, 무장투쟁을 옹호한다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고 몰아갔을 테니까요. 비슷한 질문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집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은 분명 악의적인 질문이고, 병역거부자들은 검사가 짜놓은 프레임대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병역거부자들이 스스로 수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민주주의나 사회 진보를 위한 저항운동에서 총을 들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조금만 확장해 보면 꼭 병역거부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평화운동가들, 평화주의자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운동의 목표를 이룬다면 그것을 과연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처럼요.

항일무장독립 운동에 대해서 말하기는 무척 어렵고 조심스럽습

니다. 역사적 평가야 가능하겠지만, 당시의 시공간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의 상식이나 시선으로 100년 전 일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의 의견은 “100년 전 이랬어야 했다, 저랬어야 했다.” 부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과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에 대해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대답해보자면 무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평화운동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한 판단 혹은 그 방식이 의미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평화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무엇이 폭력인가**

평화운동은 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폭력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을 폭력이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컨대 평화활동가가 출격을 앞둔 폭격기를 막기 위해 비행장에 잠입해 폭격기를 망치로 때려 부숴버린다면 그것은 폭력일까요? 혹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맥도날드 매장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면 이 행동은 폭력일까요? 혹은 물리력만 없다면, 폭언이나 괴롭힘 같은 행위가 수반되어도 폭력이 아닐까요?

무엇이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모두들 폭력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러한 정답도 처음부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회 공동

체가 갈등 속에서 길어 올린 공통의 인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출격 대기 중인 전투기를 때려 부수는 행동처럼 그것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거나,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폭력인지 아닌지를 교조적으로 판단하거나 정답을 정해놓고 늘 그 정답에 끼워 맞춰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과정이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폭력이 무엇인지, 특히 사회운동에서 무엇이 폭력인지 판단하는 것은 판단의 근거나 기준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함께 공통의 의견을 찾아가는 가운데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와 기준은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결과로서 보편적인 상식들, 예컨대 살인이나 고문이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는 판단을 포함하여야 하며 아직 보편적인 가치로 합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보편적인 차원의 기준 말고는 아무 것도 판단할 수 없지 않겠냐는 반론이 나오겠죠. 보편성을 획득한 기준을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폭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운동에서 폭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권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문제에서 접하는 폭력은 대개의 경우 권력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조차도 사회적 권력관계-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떠올리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시위대에게 행하는 폭력에서 어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경찰 폭력에 맞서 시위대가 폭력집회를 기획했다



면 거기서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권력은 국가의 법이나 공권력의 물리력만이 아닙니다. 시위대 내부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모순들, 예를 들면 시위에서 여성은 보호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고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이는 사회운동 안에 가부장제가 권력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군사주의 같은 사회의 억압적인 권력이 사회운동 안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위의 예시만 보더라도 다양한 권력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 자체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는 도덕적인 가치판단 혹은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폭력을 다룰 때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함정은 양비론입니다. 시위의 한 장면을 상상해봅시다. 경찰이 시위대를 폭행하면서 잡아갑니다. 이때 경찰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한편 시위대는 경찰 폭력에 맞서 사수대를 조직하고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경찰과 충돌합니다. 시위대의 행동은 과연 폭력일까요?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경찰에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위대의 방식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찰의 폭력과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에는 물리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라는 행위만 보자면 둘 다 똑같은 폭력이지만,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권력을 보면 시위대의 폭력은 공권력의 폭력과 결코 같을 수 없

습니다. 양비론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뿐, 폭력이 작동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폭력의 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 **평화운동은 왜 비폭력이어야 하나**

평화운동이 비폭력이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폭력이 나빠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력이 왜 나쁜지, 그 이유입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운동이 비폭력이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폭력이 나쁘다는 도덕적인 판단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화운동이 비폭력이어야 하는 까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운동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운동은 수단과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나오미 울프는 “싸우는 과정 자체가 그 싸움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독재를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인권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인권적인 방식을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평화운동이 폭력에 특히 민감하게 저항하는 운동이라면 그 방식은 철저하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폭력적인 수단으로 평화운동을 한다면 과연 평화운동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나오미 울프의 말과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인이자 활동가인 오드리 로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의 도구로는 주인의 집을 부술 수 없다.”<sup>2)</sup> 흑인으로서, 성소수자로서 여러 겹의 차별을 겪었던 로드의 말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운동은 지금 이 사회의 잘못된 지점을 반군사주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많은 정치지도자 한 명을 바꾸거나 집권당을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만이 안보를 지킨다는 군사안보이데올로기나 군사주의 혹은 전쟁과 결합된 자본주의의 질서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평화운동이 바꾸고 싶어 하는 질서가 바로 폭력으로 통제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질서입니다. 결국 폭력은 ‘주인의 도구’이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주인을 다른 주인으로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폭력을 통한 지배와 통치라는 세상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평화운동이 비폭력적이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조금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비폭력적인 방식이 평화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상하다. 폭력적인 방식이 더 쉽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독재자가 있고 독재자와 맞서는 사회운동이 있다면,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수단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운동의 목표가 독재자 하나 제거하는 것일까요? 혹은 시위대를 막아서 눈앞의 경찰을 제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위에 말씀드

---

2) 오드리 로드 지음, 주해연·박미선 옮김,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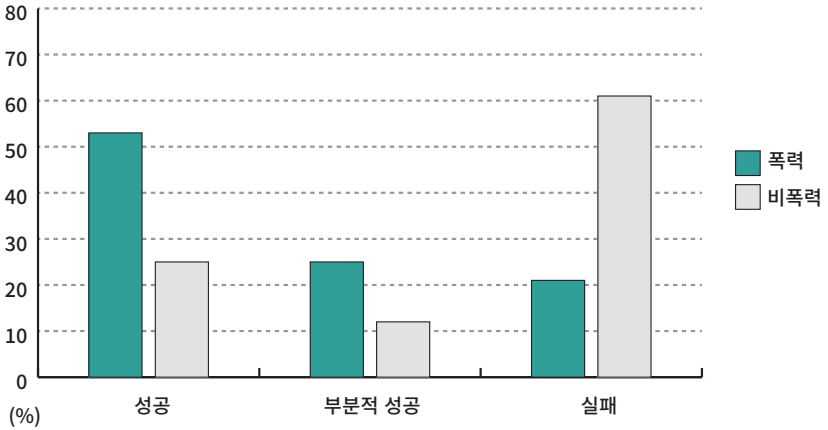


표2 캠페인의 성공, 부분적 성공, 실패 확률 비교

출처: Chenoweth, E., Stephan, M. J., 『Why civil resistance works: The strategic logic of nonviolent conflict』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평화운동은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폭력의 지배를 받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수단은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 같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 한 명, 혹은 나쁜 세력 하나 없어졌다고 세상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심지어 폭력은 평화운동에 익숙한 도구조차 아닙니다. 오드리 로드가 이야기한 ‘주인의 도구’라는 말을 곱씹어 봅시다. 다시 말해 그 도구는 시민사회운동보다 권력층이 더 잘 씁니다. 시위대가 아무리 무장하고 훈련해도 경찰과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 잘하는 방식,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싸워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직접행동을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난감하지 않을까요? 폭력적인 방식은 바로 그들(공권력)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수단은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폭력적인 수단은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소수에게 집중시킵니다. 군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나 민주적인 과정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집회를 할 때면 본대를 보호하기 위해 젊은 비장애인 남성 위주로 사수대를 만들었는데, 사수대 안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했죠. 물론 아주 급한 상황, 예를 들어 경찰이 시위대를 잡으려고 100미터 앞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한가하게 앉아서 토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 예상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죠.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결정은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된 구조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초대 대통령 무가베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끈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37년을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은 독재자가 됩니다. 쿠바의 악명 높은 독재자 바티스타에 맞서 혁명을 일으켰던 피델 카스트로 또한 혁명 성

공 이후에 긴 세월을 권좌에 머무르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통치를 했습니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혁명가들 중 많은 수가 혁명 이후에 독재자가 되어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파시즘에는 맞서 싸우면서 내부의 민주적인 구조를 강화하는 일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폭력과 싸우다 폭력과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력적인 수단은 우리가 맞서는 적을 상대하기에는 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부적절합니다. 독재자가 물러난다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평화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은 독재자를 쫓아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독재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평화운동의 목표달성을 오히려 어렵게 할 뿐입니다.

#### **Q4. 파병을 막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 평화운동의 방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인권운동을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개악된 노동법을 다시 되돌리려면 노동운동을 하는 것보다 정치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만 평화활동가들이 정치가 아니라 평화운동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치인이 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치인의 역할과 사회운동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법률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치인들이 만드는 변화는 무엇보다 사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에서는 빠른 변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이끄는 변화는 안정적인 토대를 갖추기 쉽지만 반대로 지배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변화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평화운동은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환을 지향합니다. 평화운동은 때로는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처럼 중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쏟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률이나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구조, 더 나아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병역거부 캠페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장 병역거부자들이 감옥 가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평화운동의 목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사안보이데올로기라는 패러다임을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대안적인 안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체복무 도입만을 놓고 보자면 정치인의 역할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평화운동가들의 역할이 정치인의 역할보다 더 큼니다. 노동운동, 인권운동, 생태운동 다른 사회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운동의 호흡은 4년 혹은 5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치인들의 호흡보다 훨씬 길어야 하고, 추구하는 변화 또한 정치인들이 원하는 변화와 비교하자면 더욱 근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챗터에서는 제도권 정치와 구분되는 평화운동의 특징들 -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어떤 수단을 쓰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평화운동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다른 사회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챗터를 읽어주세요.

###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회운동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권력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운동 또한 넓은 의미의 정치 행동이고, 정치 행동은 결국 권력의 작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권력, 흔히 기득권층이 사용하는 억압하는 힘으로서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스 베버부터 한나 아렌트까지 엄청난 학자들이 저마다 권력에 대해 연구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것만도 책 한두 권을 써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주로 한나 아렌트와 진 샤프가 이야기한 권력의 속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와 진 샤프의 권력 이론이 사회운동의 특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와 진 샤프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권력이 대중의 동의로부터 발현되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권력의 원천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대다수의 민중에게 있고, 정부의 권력은 일견 막강해 보이지만 수많은 제도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인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재는 실은 “가장



폭력적이지만 가장 약한 권력을 지닌 정부 형태”<sup>3)</sup>라는 겁니다. 대중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공포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간디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지배층의 권력은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생각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이야기한 ‘시민 불복종’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을 어기고, 협력하지 않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면 지배 엘리트에게 위탁했던 우리의 힘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의 원천을 다수의 민중으로 봤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힘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와 진 샤프의 권력이론이 사회운동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운동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나

그렇다면 사회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움켜쥔 소수의 지배 엘리트에 맞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며 그 활동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룰까요? 진 샤프는 사회운동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sup>4)</sup>

먼저 상대방(주로 지배 엘리트)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전향’이라

---

3) 에이프릴 카터 지음, 조효제 옮김, 『직접행동』, 교양인, 2007

4) Gene Sharp, 『How Nonviolent Struggle Works』, Albert Einstein Institution, 2013

## 사회운동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세 가지 방식

(이미지 출처: 전쟁없는세상)



전향

상대방을 설득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



협상

상대방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것



강제

상대방이 사회운동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

는 방식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성애 호소하든, 공손한 태도로 감정에 호소하든 그 호소가 먹혀들어 지배 엘리트가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전향입니다. 이럴 경우 활동가들이 감옥에 간다거나 혹은 벌금을 내야하는 일이 없으니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가장 어렵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조정입니다. 사회운동과 지배 엘리트가 입장의 차이를 조율해가는 방식입니다. 사회운동이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노사 간의 단체협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 모두 원하는 것을 백퍼센트 얻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씩 얻어가는 방식이죠. 물론 사회운동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굳이 사회운동과

타협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혹은 어떤 경우에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배 엘리트들은 분쟁이 지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회운동의 요구 조건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분쟁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에 나섭니다. 분쟁이 지속되면 지배 엘리트들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 방식이 대표적으로 파업이 있겠죠. 지배 엘리트들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강제’라는 방식입니다. 지배 엘리트가 사회운동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변화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역시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모두 함께 경험해봤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시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였고, 탄핵결의안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여러 명 동참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거나(‘전향’), 촛불시민들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상’을 해서 목표를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확인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권력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권위, 지지자, 물리력, 물적 자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권력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탄핵에 대입해보자

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보수 언론, 공권력, 연행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두려움이 박근혜의 권력을 유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권위는 추락했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공권력 또한 2009년 미국산소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비교한다면 시민들의 편에 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박근혜 정권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촛불시민들이 연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박근혜를 물러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구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촛불시민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평화운동의 강력한 도구, 비폭력 직접행동**

지금까지 사회운동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변화의 작동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 특히 평화운동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평화운동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폭력 직접행동’입니다.입니다. 평화운동이 왜 비폭력이어야 하는지는 앞선 세 번째 질문에서 다뤘습니다. 이제는 비폭력 뒤에 붙은 직접행동에 대해 알아보시다.

‘직접행동’이라고 그러면 어쩐지 좀 대단해 보이는 행동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천안문 사태 때 탱크의 행진을 막아서는 남자의 사진 기억하시죠? 그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직접행동은 꼭 그렇게 거창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에이프릴 카터는 직접행동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배 엘리트 계층에 대해 자기 이익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또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별다른 정책 지렛대도 지니지 못한 사

람들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직접행동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동기에서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은밀하게 비타협하거나 탈법행위를 감행하는 것과 직접행동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sup>5)</sup>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이 직접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저항하면 다 직접행동이냐면, 또 그건 아닙니다. 에이프릴 카터에 따르면, 직접행동이란 도덕적이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혹은 음모를 목적으로 몰래 하는 것은 직접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저항의 방식들이 전부 직접행동입니다. 진 샤프는 세계 여러 대륙의 다양한 사회운동을 분석해서 사회운동이 사용하는 비폭력 행동을 19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98가지의 목록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진 샤프가 이 목록을 정리한 것이 벌써 몇십 년 전이니 지금 보면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새로운 사회운동 방법들이 누락된 것도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법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98가지의 목록 자체보다는 198가지를 진 샤프가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진 샤프는 198가지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항의와 설득, 비협조, 비폭력 개입으로 나눴습니다.<sup>6)</sup>

---

5) 에이프릴 카터 지음, 조효제 옮김, 『직접행동』, 교양인, 2007

6) 진 샤프 지음, 백지은 옮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현실문화, 2015

## 진 샤프가 정리한 198가지 직접행동의 카테고리들

(이미지 출처: 전쟁없는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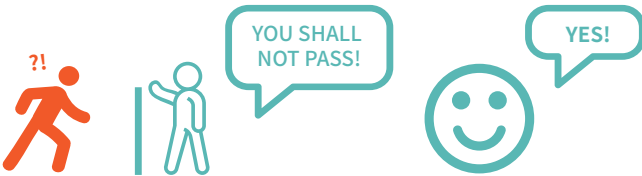
### 항의와 설득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주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주장하는 행동들



### 비협조

부당한 권력 행사나 사회 부정의에 맞서기 위해  
사회적 관습이나 정치적 의무 등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 비폭력 개입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행동

항의와 설득은 쉽게 말하자면 정치적 주장, 의사 표현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리 시위나 행진처럼 전통적인 방식들과 상징성을 띤 퍼포먼스와 예술적인 행동, 그리고 현수막이나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 등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비협조는 항의와 설득보다는 좀 더 강한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 않는 대상에는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경제적인 의무, 정치적 의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학생들의

동맹휴업, 노동자들의 파업, 시민들의 보이콧, 혹은 병역거부처럼 정부나 국가 기관의 권위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폭력 개입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비협조는 해야 할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비폭력 개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 개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항을 위한 개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한 개입입니다. 철거민들이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공사 차량을 막아서는 것이 저항을 위한 개입의 예시입니다. 대안 화폐를 만들거나 대안적인 교육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대안을 위한 개입이고요.

조금 낯선 단어와 개념이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 다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권력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막강한 독재자라도 힘을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힘은 지배 엘리트의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와 협상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우리 힘이 막강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지를 따르도록 만들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협조하지 않고 불복종함으로써 지배 엘리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국가 권력이나 지배층이 특정한 행동을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아서거나 전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 Q5 평화운동은 왜 군인 인권을 다루지 않나요? — 평화운동의 친구들

평화운동, 특히 병역거부 운동이 ‘군인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해서일까요? 군인의 인권에 대한 활동에 평화운동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군인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은 군인을 앞장서서 도왔던 이들은 병역거부자, 평화활동가, 인권활동가입니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군인권에 무관심한 가운데, 가장 열심히 활동한 그룹을 살펴보면 그중에 평화운동도 있다는 거죠.

좀 더 가벼운 한 오해 중에 하나는 평화운동은 전쟁 반대나 군축 같은 주제를 다루고, 군인권 운동은 인권운동의 영역이니 다루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활동하는 ‘전쟁없는세상’은 좋은 군대를 만드는 활동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평화운동 일반이 군인권은 인권운동의 영역이니 인권운동이 해야지 평화운동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평화운동이 어떤 운동과 만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더 근본적으로 왜 다른 사회운동과 만나고 교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운동의 특징을 찾는 일은 다른 운동과 구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좀 더 잘 만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사회 현상이나 상황을 평화운동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다른 의미를 덧붙일 수 있으니까요.



## 평화운동의 친구들

군인 인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가장 먼저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인권운동입니다. 평화운동은 인권운동과 굉장히 여러 면에서 긴밀하게 만납니다. 전쟁과 군사주의는 여러 겹의 인권침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생명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군부에 의해 일어나는 여러 인권침해적인 통제 상황, 전쟁 시기가 아니더라도 군부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대 내 인권침해와 군부대 근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폭력, 전쟁 준비를 위해 군사 기지를 만들거나 훈련장을 만들면서 지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운동은 전쟁과 군사주의가 만들어낸 심각한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인권운동의 시선이 필요하고 인권운동 또한 전쟁이나 군사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평화운동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페미니즘운동과 퀴어운동도 평화운동의 중요한 친구입니다. 군대와 전쟁, 군사주의의 가시적인 피해자로서 여성, 성소수자들과 평화운동이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평화운동이 페미니즘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성이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퀴어운동과 만나야 하는 이유도 군형법 92조의5처럼 한국 군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군사주의는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를 나눕니다. 군대에 가야 하는 정상인 사람이 군대를 갈 수 없는 비정상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군사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이

분법에 맞서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왜곡된 성 역할을 거부하기 위해 평화운동은 퀴어운동, 페미니즘운동의 시선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환경운동은 평화운동의 오랜 친구입니다. 군사기지를 만드는 곳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의 산을 깎고 강을 막으면서 기지를 만들다 보니 환경파괴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군사기지가 들어서고 나서도 군기지 주변은 환경오염으로 신음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화석연료를 극심하게 소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방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안보상 기밀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시하는 눈이 없으니 군부대들은 오염이 심각한 물질을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는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이고, 환경이고, 인간이고 그 앞에서 함께 저항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평화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로 인권운동, 페미니즘운동과 퀴어운동, 환경운동을 꼽아봤습니다. 꼭 이 운동들하고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회운동이 평화운동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 **평화운동은 친구가 필요하다**

평화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단순한 당위로서가 아닙니다. 평화운동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

한 일입니다. 물론 평화운동의 친구들인 다른 사회운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여러 사회운동이 서로 만나고 교차해야 하는지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화운동은 앞서 살펴봤듯이 전쟁과 군사주의가 일으키는 여러 폭력에 맞섭니다. 전쟁에 저항하는 운동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주 복잡한 여러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이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여러 사회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군수 산업체들의 돈벌이라는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가, 무기 산업의 글로벌 구조를 파헤쳐 보면 세계화의 문제가 보입니다. 군사주의의 작동 방식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젠더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전쟁 혹은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없애는 것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사회 모순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한쪽 면만 본다면 군사주의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다양한 사회 운동과 만나고 서로 시선을 익히고 배워야만 전쟁과 군사주의라는 거대한 적과 맞설 수 있겠죠.

평화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만나고 다른 시선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평화운동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평화운동 뿐 아니라 모든 사회운동에서 같은 이유로 교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운동과 만나고 섞이고 서로 배울 때 그 사회운동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역거부 운동은 군대를 거부하는 특징 때문에 남성 중심 운동이 되기 쉽고 특히 감옥에 가는 남성이 영웅이 되고 여성 활동가는 영웅인 병역 거부자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병

역거부 운동이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해, 영웅주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건 페미니즘운동의 영향 덕분입니다. 노동운동이 인권의 문제를 익힐 때 운동이 더욱 민주적으로 되고, 인권운동이 평화운동에 배울 때 군사주의에 맞설 효과적인 언어를 알게 되고, 평화운동이 페미니즘운동을 만날 때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의 연결고리를 알게 되고, 페미니즘이 노동운동을 만날 때 억압과 계급의 문제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운동이라면 다른 운동과 만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평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 평화운동 사례

다섯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평화운동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지, 어떤 철학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개념에 대한 설명이 많아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 평화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모든 사례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무수한 평화운동들 가운데서 비교적 명확하게 비폭력 직접행동이라는 평화운동의 특징이 드러나는 운동을 선별했고,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주제와 활동방식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들을 골랐습니다.

이 사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종료된 캠페인입니다. 성공을 거둔 캠페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캠페인들도 있습니다.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캠페인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들은 보고서를 읽는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보고서를 계기로 많은 시민이 평화운동의 다양한 캠페인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매향리, 대추리, 강정마을, 소성리

태어날 때부터 활동가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활동가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가 활동가가 된 이유나 시기도 다 다르겠죠. 저는 한동안 직업 활동가를 그만두고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왔는데요,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한

곳으로 바꾸는 일이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팔자에 없는 활동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기 인생으로 커다란 사건이 혹 들어오면서 활동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용산 참사 유가족, 혹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백혈병을 얻어 돌아가신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신의 삶도 함께 그 사건 한 가운데로 휩쓸리어 가게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는 건 휩쓸린 탓만은 아닙니다. 큰일을 겪은 분들 모두가 활동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자기의 일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나선 것이죠.

### **매향리, 대추리, 강정마을, 소성리**

평화운동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박하고 성실하게 이웃들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면서 촛불집회도 하게 되고, 기자회견도 하고, 경찰하고 싸워도 보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매향리, 대추리, 강정마을, 소성리의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매향리는 오랫동안 미군의 사격장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미공군 폭격기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일상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폭격 훈련 당시 유출되는 오발탄 사고로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

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고통을 참다못한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주민들의 싸움에 함께 했습니다. 2005년 마침내 사격장을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대추리는 평택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해방 전에는 일본군의 기지가 있었고 해방된 뒤에는 그 터에 미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집결하면서 원래 있던 미군 기지를 확장한다면서 기지 옆에 붙은 마을 주민들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직접 간척을 해 농토를 개간하고 동네 아이들을 위해 학교도 직접 만들어 교육청에 기부할 정도로 농촌공동체가 살아있던 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많은 평화활동가, 인권활동가, 예술가들이 대추리 빈집에 들어가 살면서 함께 싸웠지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정부의 강제적인 이주 작업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대추리가 있던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군기지가 들어섰고 주민들은 평택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새로운 대추리 마을은 농지도 없는데다 주민들이 다들 연세가 많아서 농사짓는 가구가 이제 2가구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새로운 대추리 마을에 황새울 역사관을 만들어 마을의 역사와 투쟁 기록을 보존해냈습니다. 또한 평택평화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군기지와 연관된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평화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입니다. 제주에선 드물게 물이 풍부해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며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군기지를





대한문 앞에 모여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퍼포먼스를 하는 평화활동가들.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양 해군’을 표방하며 군사력 확대를 도모하는 정부의 기조에 저항하기 위해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반대운동에 제 일처럼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pspd100/1338915](http://www.peoplepower21.org/pspd100/1338915)

마을 옆에 짓기로 결정하면서 평화롭던 마을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마치 대추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웃 사이 우애 넘치던 마을은 해군기지 찬성과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고 씻을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생겼습니다. 해군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했고 이에 저항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던 구럼비 바위를 부수고 그 자리에 해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마을주민들과 강정지킴이 평화활동가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해군기지를 감시하며 제주도 지역의 여러 사회문제들과 평화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성리는 비교적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2014년 주한미군사령관

이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언급했고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롯데골프장이 위치한 성주의 조그만 마을 소성리가 사드 배치 부지로 낙점되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뜻하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용도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갈등을 고조시키는 결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2017년 4월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심 장비들을 사드 부지에 기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사드 배치가 임시적인 조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참외밭을 일구며 살아온 소성리 주민들은 앞으로도 참외밭을 일구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사드기지가 완성되는 것을 막고 하루 빨리 임시 배치조차 끝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 **토착민을 쫓아내는 군사주의**

위에 설명한 매향리, 대추리, 강정마을, 소성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또 여러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연대하면서 널리 알려진 곳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곳에서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 무기 공장을 짓기 위해, 군인들의 훈련장을 짓기 위해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났을 겁니다. 이런 일은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남미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기지가 아니라 무기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지역민들을 착취하거나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평화운동가들은 군대나, 군수 산업체들에 의해 쫓겨나가거나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토착민들의 저항에 적극 연대합니다. 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가장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군사기지에 쫓겨나는 토착민들의 저항운동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일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항리에서 사격장이 폐쇄되기 전부터 대추리에서 농민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대추리가 강제로 이주하고 나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비 바위가 폭파되고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가 배치되기 시작했구요.

한 마을, 한 지역에서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강한 무기와 강한 군대에 의존해야 평화를 지킨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방정책과 맞서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연대가 더더욱 절실한 평화운동이기도 합니다.

##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병역거부 캠페인

“만약에 전쟁터에 군인이 한 명도 없다면 누가 전쟁을 하지?”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캠페인은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끔찍하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1차 세계대전은 정말로 군인의 목숨으로 밀도 끝도 없는 구덩이를 채운다는 점에서 특별히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벙커 안에서 버튼 하나로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아예 군인이 없이 드론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은 총을 든 군인이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군의 평화활동가들이 전쟁을 막기 위한 실천에 대해 생각하다가 모두가 군인 되기를 거부한다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서기 295년 막시밀리아누스가 기독교인의 신앙으로서 로마 군대의 징집을 거부하고 처형당한 뒤로 병역거부는 주로 소수 종교인들의 신앙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물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신체를 훼손하거나 산으로 도망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징집을 회피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런 행동 또한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이후로 병역거부는 평화운동가들이 전쟁에 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 **아무나 할 수 있는, 누구든 잘 알고 해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적으로는 시민 불복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실천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현대 미국이 자신의 민주주의를 자랑할 때 늘 가장 앞자리에 내세우는 인물 중 한 명이죠. 불의의 법이나 잘못된 국가의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시민 불복종입니다. 소로우는 당시 미국이 멕시코를 침략하는 것이 부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전쟁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소로우의 시민 불복종 사상은 이후 간디의 독립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운동 등에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병역거부권 인정은 평화운동이 최근에 거둔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진 출처: 전쟁없는세상

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러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호소를 합니다. 병역거부 또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1만9천명이 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었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데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전쟁을 반대하는 양심, 그것 하나면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됩니다. 병역거부는 아무

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병역거부는 시민 불복종이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불복종의 대상이 법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수감되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지 가늠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행동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에도 나쁜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 **전쟁에 대한 양심적 거부**

우리말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로 부르는데, 영어로는 ‘conscientious objection’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그냥 ‘양심적 거부’입니다. 이때 ‘양심’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질고 좋은 마음이라는 뜻과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양심’의 의미를 잘 정리했는데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양심’입니다. 영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꼭 병역이나 징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부당한 명령이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병역거부, 즉 ‘양심적 거부’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거부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양심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과된 어떤 일을 거부하는 행동이 모두 양심적 거부에 해당합니다.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과학자, 전쟁을 찬양하는 수업을 거부하는 교사, 전쟁 물자 생산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모두 양심적 거부, 넓은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병역거부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남자들만 하는 것, 특히 징병대상자인 비장애인 젊은 남성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병역거부를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과 양심에 따라 전쟁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거부하는 실천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누구라도 병역거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무기들이 잘 있거라: 대인 지뢰 캠페인, 확산탄 금지 캠페인, 최루탄 수출 반대 캠페인, 핵무기 금지 캠페인**

“메렉스가 판매한 무기를 사들인 이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 사고 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영업 사원이 짊어져야 할 정도만 책임이 있을 뿐이다.”<sup>7)</sup>

독일계 무기중개상인 메르틴스의 저 말을 『전쟁을 팝니다』에서 읽었을 때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무리 먹고사는 게 중요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람 목숨 값으로 돈 버는 일 말입니다. 무기중개상 메르틴스의 저 말에서 일말의 수치심, 미안함, 염치 같은 인간적인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무기중개상이 메르틴스 같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모든 무기는 당연하게도 메르틴스보다 더 차가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노인이거나 아이인지, 슬픈 표정을 하고 있거나

---

7) 켄 실버스타인 지음, 정인환 옮김, 『전쟁을 팝니다』, 이후, 2007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을 테니까요.

각종 살상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의 의도와 별개로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비극적인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은 뒤라도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야 다음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사용이 가져오는 막대하고 심각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무기가 이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거래하는 일을 좀 더 까다롭게하는 국제조약을 만드는 일부터, 자국의 무기가 외국에서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을 저지하는 운동, 더 나아가 특별히 더 문제가 많은 무기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운동 등 무기의 생산, 거래, 사용을 막는 여러 평화운동이 존재합니다.

## **개별 무기에 대한 평화운동의 다양한 저항**

2017년 노벨평화상은 핵무기 금지조약이 채택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수상했습니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차별해왔던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다르게 핵무기 금지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감축과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약이 현실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핵무기 금지조약 채택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이 바로 ICAN이라는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문제가 심각한 특정 무기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기 자체를 폐기하는 것을 각국 정부에게 강제하기 위한 여러 조약들을 만드는 데 평화운동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제조약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개별 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튀지니에서 시작되어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퍼져나갔던 아랍의 봄은 바레인에도 거센 민주화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수백만 발의 최루탄을 무차별 발포해 최소 39명이 죽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레인 정부에 가장 많은 최루탄을 수출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평화운동 단체와 평화활동가들은 한국산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실제로 수출을 막아냈습니다. 물론 최루탄 수출 하나 막았다고 바레인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점에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좀 색다른 방식으로 비인도적인 무기의 생산을 막거나 압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의 연기금-노르웨이정부연금, 스웨덴연금펀드, 덴마크공적연금은 한국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화와 풍산이 확산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확산탄은 따로 확산탄금지조약이 만들어질 만큼 대표적인 비인도적무기입니다. 커다란 폭탄 안에 수백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고, 이 작은 폭탄들이 공중에서 흩뿌려져



방위사업청 앞에서 진행한 바레인 최루탄 수출 금지 기자회견. 평화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정부는 바레인에 최루탄을 수출을 금지하게 되었다. (사진 출처: 전쟁없는세상)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고 그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가 극심한 무기입니다. 특히 작은 폭탄들 중 불발탄들은 땅에 묻힌 지뢰가 되어 폭격 수십 년 뒤에도 폭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럽 평화운동의 활약으로 북유럽과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의 연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철회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확산탄 생산을 중지했는데 한화와 풍산은 아직까지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한화와 풍산의 주식을 각각 7.34% (2011년 12월 기준), 9.62%(2012년 9월 기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의 세금을 비인도적인 무기 생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국내의 캠페인은 북유럽만큼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생산을 중단시

키기 위해 법안을 만들지 않고도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 **평화운동과 시민들의 몫**

권총, 기관단총, 휴대용 미사일 등 소형무기로 죽어가는 사람이 해마다 50만 명이 이릅니다.<sup>8)</sup>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화운동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각종 무기들의 사용을 막았고, 지금도 효과적으로 특정한 무기 사용을 막거나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탄, 최루탄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무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수한 무기들의 생산이나 거래, 사용을 시민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에 한국 정부가 가입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보이콧하고, 그 업체에 투자하는 기관들에 압박을 가하는 일, 무기 생산과 수출 및 거래를 다루는 법을 굉장히 촘촘하고 까다롭게 만들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일, 이 모든 일은 정부나 정치인이 스스로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 **살인마보다 무서운 살인무기 전시회를 멈춰라: 아덱스 저항행동**

창공을 가로질러 뚝 떨어지는 검은 삼각형들, 색색의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수놓는 비행편대들, 그 아래에서는 최신 과학기술의 정수

---

8) 출처: 아덱스 저항행동 홈페이지 [http://stopadex.org/?page\\_id=5809](http://stopadex.org/?page_id=5809)



아덱스 VIP 환영 만찬장 앞에서 피문은 달러를 뿌리며 직접행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활동가들. 사진 출처: 전쟁없는세상

를 뽐내는 무인 로봇들과 VR 체험장이 있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 사이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왁자지껄 소리가 가득합니다. 한편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작고 묵직한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자!”*

2년마다 성남의 공군 비행장에서 열리는 무기 박람회 서울아덱스(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의 풍경입니다. 에어쇼와 재밌는 전시들이 가득하지만 서울아덱스는 비즈니스를 위한 박람회입니다. 이곳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은 무기와 군용 물품들입니다. 이곳에서 최첨단 과학의 의미는 ‘정밀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람들 죽이고 건물이나 다른 무기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파는 쪽은 록히드 마틴, 보잉, BAE, 한화, 풍산 같은 군

수 산업체들이고 각국 국방관계자들이 서울아텍스에 참석해 방위 산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고객들 가운데는 자국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독재국가,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이웃나라 국민을 학살하는 침략 국가들도 있습니다. 무기거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텍스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세미나와 워크숍들이 열립니다. 최첨단 무기의 과학기술을 홍보하고 시연하기도 하고, 강한 무기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군사안보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 **무기산업체와 전쟁 돈벌이**

서울아텍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큰 규모의 무기 박람회입니다. 대륙마다 아텍스와 유사한 무기 박람회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ISDEF (Israel Defence & HLS Expo)가 열렸고, 9월에는 영국에서 DSEI (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가 열렸습니다. 10월에는 한국에서 아텍스가 열리고, 11월에는 일본에서 DSEI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부상들이 붓짐을 지고 전국의 장터를 돌아다녔던 것처럼 무기상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상품은 팔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상품이 무기가 아니라면요.

군수 산업체들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더 많이 팔기 위해 군사안보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정치인들에게 대규모의 로비를 하고 국방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넵니다. 영국에 위치한 부패감시 단체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을 전후한 록히드마틴의 주식 시세.

출처: [kr.investing.com/equities/lockheed-martin-chart](http://kr.investing.com/equities/lockheed-martin-chart)

인 커럽션 워치의 앤드류 파인스타인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수 산업체들이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주식 가치가 폭락하는지를 보면, 군수 산업체와 전쟁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기 회사인 록히드마틴은 2017년 역대 최고 수준인 5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의 영향도 있지만 주목할 것은 미사일과 사격통제 분야의 매

출이 2016년 대비 9% 늘어났다는 것입니다.<sup>9)</sup>

2017년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무척 고조된 때로, 이 시기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됩니다. 반면 도보다리 회담으로 기억되는 남북정상 회담과 판문점 선언 직후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2.5%가 하락했습니다. 69쪽 그림을 보시면 2018년 4월 27일에 주식 시세가 폭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 롱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5대 군수 산업체의 주가 하락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시가 총액이 판문점 선언 이후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군수 산업체들이 왜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

사람 죽이는 거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쇧덩이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체 왜 그렇게 잘나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치인이나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이 군수 산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군수 산업체를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명의 책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새도우 월드>에서 앤드류 파인스타인은 각국 정부의 수반을 군수 산업체의 영업사원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한국 정부만 보더라도 군수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생산에 있어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정부는 전략적으로 무기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무기 수출 세계 10

---

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171459740303>

〈표 5-3〉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

단위: 억달러

순위	국가명	GDP	한국과의 관계	분쟁 가능성*	방산수출 수주 (2014-2016)	무기획득예산 (2018-2022)	방산제품과의 연계성	국방협력 MOU
1	미국	★	★	★	28.4	5,865	★	☆
2	인도	★	★	★	0.0	682	★	★
3	아랍에미 리트	☆	☆	☆	10.7	176	○	★
4	인도네시아	★	★	☆	1.4	114	☆	★
5	일본	★	★	☆	0.0	363	★	○
6	필리핀	☆	☆	★	9.4	37	○	★
7	사우디 아라비아	○	☆	☆	0.8	587	○	○
8	터키	☆	☆	★	0.5	112	☆	☆
9	이라크	△	☆	★	7.6	121	○	○
10	말레이시아	○	★	○	12.2	63	○	☆

자료: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 A, ☆: B, ○: C, △: D 등급(〈표 5-2〉 등급 구분 참고).

표3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표. 자료: 산업연구원(KIET) 작성

위권이 목전인 지금도 여전히 정부는 군수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2017년 서울아텍스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중략)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 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군수 산업체의 영업사원이라는 앤드류 파인스타인의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방산 한류’라는 이름으로 각종 무기



와 방위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수 산업체들의 주요 고객들을 살펴보면 문제점은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작성한 ‘2018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이라는 표를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지역과 분쟁 중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수준의 군수품 수입국이고 오랜 세월 동안 파키스탄과 군사적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서파푸아 등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지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억압적인 국가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난민을 양산한 예멘 내전에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주요 행위자이기도 합니다. 이라크는 아직 전쟁의 참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나라들에 판매된 무기는 반인권적인 형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예멘 내전에서 한화가 만든 수류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류탄은 한화가 생산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한 것이 예멘 반군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군수산업과 방산 수출이 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에 침묵하면서 여전히 방산 수출을 독려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은 정말로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이 교통사고에 대해 저야 할 책임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요?

##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출 수 있다

평화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핀잔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 가서도 똑같은 주장을 해보라는 겁니다. 무기 박람회도 한국에서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전쟁 자체가 한 국가의 국경선을 넘나드는 행위이니, 무기 박람회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행동도 한 국가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면에서는 그 핀잔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세계 곳곳의 무기 박람회가 열리는 곳에서 평화활동가들이 무기 박람회를 막기 위해, 군수산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남미에서, 한국에서 그 밖의 여러 대륙 여러 지역에서 무기 박람회에 저항하는 행동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무기 박람회에 참여하는 군수 산업체 직원이 평화활동가들에게 “내가 지난 달에 런던에서 열린 DSEI에서 너희 친구들 봤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많은 전쟁은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챙기는 곳들은 무기 박람회장 부스를 가득 채운 군수 산업체들이죠. 전쟁을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장사꾼들이 마음 놓고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즉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을 못 하게 하거나 어렵게 한다면 그만큼 세계는 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 가해자의 자리에 서 보기: 베트남전 시민법정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배상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등에 관하여 공식 인정하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사이에 베트남 지역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군대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 실시를 권고한다.”

김영란 시민평화법정 재판장이 선고문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 갈 때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고인석에 앉은 동명의 원고 응우엔티탄 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통역자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제법 긴 선고 요지 낭독이 끝나고 담당 변호사가 “우리가 이겼어요”라고 말한 뒤에야 두 원고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서울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 열렸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은 전쟁이 끝난 뒤 오랫동안 참전 군인의 무용담으로,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이어져 왔을 뿐 공식적인 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99년 <한겨레21>의 보도로 이 문제가 공식화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모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가 조명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국가 폭

력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손을 잡는 것은 오롯이 평화운동의 몫이었습니다.

2018년의 시민평화법정은 공식적인 법정도 아니고 따라서 판결문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폭력에 눈 감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때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가 폭력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비롯한 배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평화의 시선으로 보면 가해자로서 책임이 보인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생각할 때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도 아니고, 혹은 전쟁 소식을 빨리 접하고 먼저 도망갈 수 있는 재력가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력하게 죽고 다치는 이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소시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깐요. 게다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서구 열강들의 군사적 침략 시도,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과 같은 기억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전쟁에서 스스로를 침략 당하는 쪽 혹은 피해를 입는 쪽에 위치시킵니다.

분명 폭력, 특히 국가가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으로 폭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 폭력이 작동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미완의 해결을 할 뿐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으니 비슷한 일이 반복되겠죠. 시민평화법정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평화란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한국 시민 한 명 한 명이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베트남전쟁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재벌 기업들이 베트남전쟁의 특수으로 성장했고 그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할 일은 가해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재와 긴밀하게 연결된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는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해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의 역사로부터 상속받은 우리의 유산을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질문에 성심성을 다해 대답하는 일,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국가폭력을 극복하는 평화운동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을 시민평화법정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평화법정이라는 형식**

한국 사회에서 시민법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용산참사 이후 ‘용산참사 국민 법정’이 열렸고, 더 멀게는 2000년에 열린 ‘일본군 성노예 국제 여성 전범 법정’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국가폭력에 대해 가해국의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이를 사회에 공론화하고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시민법정은 아주 의미 있는 캠페인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재판은 아니지만 시민법정에 참여하는 법률가들은 실제 재판과 다를 바 없는 진지한 태도

로 재판에 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결과가 정해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알맹이 없는 이벤트가 되어 버릴 테니까요. 대개의 시민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가 되는데 피고 측 변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공권력 측 원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해 논리를 짜고 변론에 임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과정은 단순히 법률가로서 흉악범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 법정에서도 원고 측 변호사들은 참전군인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원고의 법정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뿐더러, 진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이 각자의 몫의 책임을 온전하게 짊어질 때만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시민들이 열어가는 평화운동의 자리**

꼭 시민법정이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이 아닌 다른 주제라도, 평화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책임을 밝혀내고 묻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는 현대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따라서 아주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리와 감시는 국가폭력이 부당하게 행사되기 전

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바로잡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도 포함됩니다.

## 연구보고서를 끝맺으며

평화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평화운동의 이슈가 보통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이슈나 병역거부,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관심 갖고 평화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또는 군수 산업체들이 뿌려대는 막대한 뇌물과 천문학적인 국방비는 지금 당장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복지에 쓰인다면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보통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며 살기도 힘드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이런 이유 때문에 평화운동은 종종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의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고, 변화가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니 평화운동은 갈수록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운동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평화운동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고단하지만,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동치는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는 분명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군사적 갈등이 심



화하는 길일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 평화의 길일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평화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도 평화운동의 역할이고, 혹은 새로운 평화의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북협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부는 강한 군사력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이는 북한을 자극합니다. 이 모순을 정부는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평화운동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운동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평화운동은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대한 특유의 민감함이라든지, 폭력에 대한 성찰 덕분에 평화운동은 늘 운동 내부의 관계와 민주주의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거나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의 반복이 무한동력과도 같은 역동적인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또한 비폭력의 철학과 직접행동의 전통, 평화운동에서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평화운동의 떠들썩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물론 평화운동이 좀 더 노력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평화운동의 핵심적인 주장과 이야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회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평화운동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갖고 더 많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운동의 언어를, 평화운동의 시선을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야 합니다. 소수의 운동만으로 고립된다면 평화운동 또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지 못한

자기 만족적인 활동이 될 것입니다. 평화운동의 미래를 묻는다면 저는 과연 평화운동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평화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구보고서를 썼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미처 담기지 못한 이야기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평화운동 전반을 다루기에는 저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보고서 1장에서 밝힌 것처럼 저는 평화운동 중에서도 반군사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넓은 차원의 평화운동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담론은 실천과 함께 성장합니다. 실천이 미약한 것이 꼭 담론 탓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평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담론은 평화운동 자체보다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운동이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지기 위해서라도 평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평화운동 전반을 다 다루진 못했는데, 그렇다고 2019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2017년 북한과 미국의 극한 대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되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 회담을 이어진 극적인 대화의 국면, 그리고 그 뒤로 길고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답보 상태에서 평화운동의 의미와 역할이 이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남북 평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안보위협론에 따라 군사비 증액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모순 지점을 보이는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

보고서의 부족한 지점입니다.<sup>10)</sup>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른 평화활동가 동료들과 연구자들에게 의지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보고서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장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를 평화운동에 대한 초대장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운동을 해온 활동가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평화운동에 관해 설명하고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글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제목으로 글을 끝맺으려 합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주제와도 딱 들어맞습니다.

Give peace a chance! 평화에 기회를!

---

10)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대한 평가는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가 상세히 다루고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Gtbn3llyWCX3Lhu50KsHahzI09CxU9wv/view>



## 부록

### 국내 평화운동 단체들 목록

단체명	주요 이슈, 주제	활동방식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 탈군사화, 통일	네트워킹, 직접행동
피스모모	평화교육, 탈분단, 군축	어드보커시, 직접행동, 교육·훈련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 무기감시, 반군사주의	어드보커시, 직접행동, 교육·훈련
열린군대를위한 시민연대	군민주화, 군인권, 탈군사주의	어드보커시, 직접행동, 교육·훈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방·외교정책 감시, 한반도 평화체제, 군축, 국제분쟁	어드보커시, 네트워킹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직접행동, 교육·훈련
한베평화재단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어드보커시, 교육·훈련
평택평화센터	주한미국 감시, 평화교육	어드보커시, 직접행동, 교육·훈련
평화네트워크	평화정책, 군축, 비핵화	어드보커시, 교육·훈련

연락처	홈페이지
02-929-4846 wmpeace@naver.com	www.peacewomen.or.kr
02-6351-0904 peacemomo0904@gmail.com	peacemomo.org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withoutwar.org
02-338-0426	www.militarywatch.or.kr
02-723-5300 peace@pspd.org	www.peoplepower21.org/Peace
nablus3@gmail.com	pal.or.kr
02-2295-2016 kovietpeace@gmail.com	kovietpeace.org
031-658-0901 tico1031@gmail.com	peacept.org
02-733-3509	peacekorea.org

## 참고 자료

### 단행본

- 오드리 로드 지음, 주해연·박미선 옮김,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 신시아 인로 지음, 김엘리·오미영 옮김,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바다출판사, 2015
- 서보혁, 정주진 지음, 『평화운동-이론·역사·영역』, 진인진, 2018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지음, 여지우·최정민 옮김,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 경계, 2018
- 진 샤프 지음, 백지은 옮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현실문화, 2015
- 에이프릴 카터 지음, 조효제 옮김, 『직접행동』, 교양인, 2007
- 켄 실버스타인 지음, 정인환 옮김, 『전쟁을 팝니다』, 이후, 2007
- 엄기호·김종대·강인철·정희진·서경식·조영선·하승우·최현정 지음, 전쟁 없는세상 엮음, 『저항하는 평화』, 오월의봄, 2014
- 정희진 지음, 『아주 친밀한 폭력』, 교양인, 2016
- 정희진 지음,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13
- 박래군 글, 대추리사람들 엮음, 『아! 대추리-대추리 주민들의 평택 미군 기지 확장이전 반대 투쟁기록』, 사람생각, 2010
- Chenoweth, E., Stephan, M. J., 『Why civil resistance works: The strategic logic of nonviolent conflict』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 Gene Sharp, 『How Nonviolent Struggle Works』 Albert Einstein Institution, 2013

### **홈페이지/블로그/카페**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 법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tribunal4peace>
-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http://www.withoutwar.org/>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Peace>
- 피스모모 홈페이지 <https://peacemomo.org/>
- 아덱스 저항행동 홈페이지 <http://stopadex.org/>

### **기타 자료**

- 다큐 〈새도우 월드〉, 요한 흐리몬프러 감독, 앤드류 파인스타인 원작, 2016
- 책자 『비폭력 캠페인을 위한 안내서』, 전쟁저항자인터넷내셔널(WRI)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2014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발행, 피스모모 번역, 「SIPRI YEARBOOK 2018 요약본」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https://drive.google.com/file/d/1Gtbn3llyWCX3Lhu50KsHahzl09CxU9wv/view>







## 활력향연 2019

활력향연-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일 | 2019년 10월 31일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mailto: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http://www.snpo.kr)

주소 |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